

사설

불교계의 분열은 있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근현대의 한국불교계 수난은 그대로 민족의 수난과 함께 한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불교 전통이 유린되고 해방 후에는 이념적 갈등과 권위주의가 발목을 잡았으나 이내 태고종의 창종으로 내부 갈등은 진화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을 계속함으로써 사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불교 내부 역량을 약화시켰다. 우리 민족이 분단되고 계속된 정변과 진동으로 얼룩진 역사만큼이나 불교계의 흐름도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속에 나투어 중생의 고통을 생활불교로 다독이는 종단의 탄생도 있었고 교회의 여러 방면상 나름대로 뜻을 새로이 하는 종단이 창종하여 다종단 시대를 열었다. 이런 다종단 시대에 서로 원용화합하여 진실로 불에 보답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한국불교가 되자는 원력으로 창립한 것이 현재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다. 물론 그 명칭과 구성 조건 등이 몇번에 걸쳐 개정되고 개정되기는 했으나 종단협의 목적이 바 '종단 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불교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함으로써 불교중흥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살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재 종단협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올대회를 앞두고는 큰 파문으로 나타났다. 종단협의 연례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국제행사로서 불교계만이 아니라 한국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되는 이 행사에 불교계의 내분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자칫 양비론적 지적이 될지 모르겠으나 문제제기를 한 쪽이나 구실을 준 쪽 모두 현안에 대해 대중공사를 통해 자자와 포살을 한다는 심정으로 현명한 해결을 찾아야 했으나 날이 갈수록 문제는 더욱 꼬이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단협과는 별개로 무슨 '진흥회'라는 명칭을 걸고 사발동문식의 문건을 돌리는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공론이므로 당사자의 각성이 있어야 했다. 더구나 올해 연말로 예정된 대 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외부에 교계의 분열상을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종단협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작년 봉축행사를 전후하여 종단협 내부에서 종단 연합행사에 있어 특정종단이 전환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그후 이런 문제제기가 작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급기야 작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의 서

한편 이런 문제제기를 받은 특정종단의 반응도 아쉬운 점이 많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종단이 이런 문제가 대두된 배경에 대해 포용성 있는 자세를 보여 원용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해볼테면 해볼라'식이나 정치권의 공작으로만 내뿜고 해서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한 점도 있다.

민족의 자존심은 지켜져야 한다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체가 우리나라의 종교인인부 피해자들 5명에게 소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돈 200만엔씩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것도 후시누가 일가와 몰래 전하고 갔다고 하는데 뒤늦게 이 일이 밝혀져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소위 대평양 전쟁이란 것을 일으키면서 강제 징발 혹은 취업을 미끼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중국위안부로 몰아내므로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으며 살아 돌아온 사람은 치욕과 통탄 속에서 불우한 한 평생을 보내게 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가난과 치욕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생존자들이 의해서도 입증되지만 여러 국제기구에 의해서도 일본의 슬한 만행은 확인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그 동안의 조사를 통하여 이 문제는 일본정부가 명백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문제는 자신들과 무관한 과거 군부의 일이었다고 발뺌하거나 아니면 극우 인사들의 입을 통하여 정신대 문제는 개인적인 취업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간 차원의 일이었다고 망언하고 있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것을 은폐하려는 저들의 간교한 논건이다. 대부분의 종교위안부들이 한맺힌 삶을 이끌고오면서 가족도 없이 국권자로 살아간다는 악점을 이용하여 과거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돈으로 유아무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우리의

민족정기와 정서를 무시한 크나큰 착각이라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서 일본의 간교한 역사 왜곡행위는 앞으로도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잘못을 가리키면 더욱 열중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등에 업은 국력 신장과 더불어 그들 역사의 왜곡과 부끄러운 과오의 은폐작업을 더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짐은 최근 그들의 잇다른 망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되먹이지 못한 저들의 속성이라고 치부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면 되지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종교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과 때문에 원수의 돈이나 다름 없는 저들의 미끼에 굴복하도록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의의주는 해결하여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게 했어야 우리의 도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일이 불거질 때마다 눈가림식의 성명 발표로만 때우고 말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치밀한 대책과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할 일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이러한 문제는 감정적인 일과성 대응이 아니라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일관된 자세, 그리고 뚜렷한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보내고 희망에 가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종단의 가장 큰 불공을 올해에도 전국의 스승 교도 여러분들과 다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교주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깊이 감사의 호념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변함없이 전국의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마다 불보살의 자비광명이 고루 비추어주시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종단 뿐만 아니고 교계의 모든 종단들이 골고루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 및 모든 어려운 국사들이 속히 호전되고 세계 모든 나라들도 새해부터는 아집을 버리고 평화로운 세계일가를 이루는데 힘써 노력하도록

독(單獨)이 아니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까닭이며 개인상대가 아니고 사회상대를 하는 것이다. 속세를 구제하지 못하면 극락도 없다. 현세에 악(惡)함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극락으로 가겠는가. 이것이 대승(大乘)이다. 염불왕생(念佛往生)보다도 자신이 실천하고

아내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이 날로 더해 갑니다. 미래는 유한(有限)한 것이 아니고 무한(無限)한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미래를 위해 우리 진언 행자(眞言行者)들은 출선수범하여 현재 정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세에서 악을 고치고 남을 위하여 보살행이 없이 어찌 성불을 기약하며 어느 생애 다시 복덕 짓기를 기약하리오. 우리 모든 종도들은 새해에는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될 것을 새롭게 발심하고 서원합니다. 육행실천(六行實踐)은 우리 종조님의 가장 간곡한 교시입니다.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서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법신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지가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보 총리원장 법공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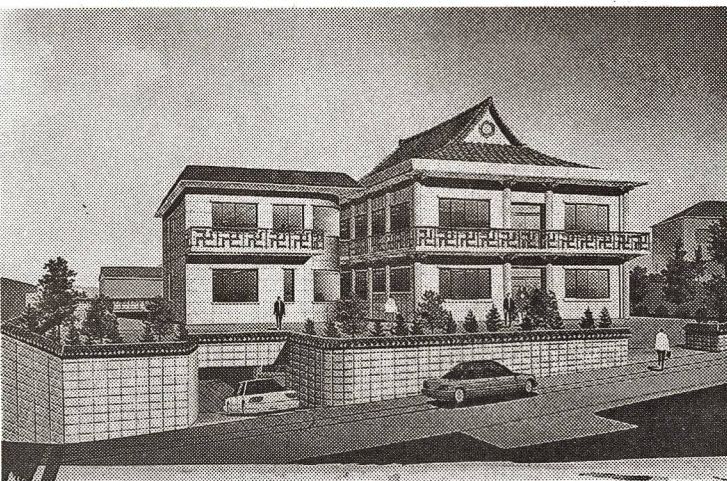
총리원장 신년사

부처님의 법력이 미처지기를 우리 다같이 지심으로 기원토록 합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은 종조님의 법설 일구(法說 一句)를 인용코져 합니다. "현세정화(現世淨化)가 곧 내세극락(來世極樂)이 되는 것이니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輪廻)로 다시 태어나는 까닭이 아니라, 그 열반(涅槃)이 단

남을 지도해야 한다. 이것이 성불행(成佛行)이요 복덕(福德)이 그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진리에 중흥을 잃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집과 편견, 지나친 이기심과 사행심들이 청정본심(淸淨本心)을 몰

로 이 건물이 들어서서로서 화생회(華生會) 청년회들 각종 신행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종립 유치원이 개원함으로써 어린이 포교에도 한몫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총리원장 신년 사업계획 발표



삼밀사 신축 조감도

본종 총리원에서는 새해 주요 불사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리원에서는 국가경제의 심각성과 본종이 과소비 추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본종의 홍보와 교화에 도움이 되는 실속있는 불사에만 힘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먼저 삼밀사와 자석사의 신축을 들 수 있다.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삼밀사 신축은 그동안 미주한 교회측의 터무니 없는 반대로 수년 동안 착공이 미루어져왔는데 작년말 이의 해결을 보므로서 금년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총공사비 12억원이 소요되는 삼밀사는 연면적 1200㎡의 지상2층 지하1층의 규모이다. 한편 부산 남구 관안동에 세워질 자석사는 연면적 1903㎡, 지상2층 지하1층에 총공사비 14억원이 소요된다.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중 완공할 예정인 자석사는 삼밀사와 함께 부산지역의 포교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년에는 매년 거행되던 어린이·학생법회 및 경로법회 이외에도 청·장년부를 위한 대대적인 법회

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총리원에서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조직관리가 소홀하여 등한시되어있던 청장년부의 조직제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리라고 한다. 아울러 총리원에서는 본종의 홍보를 위하여 밀교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정통밀교종단으로서의 본종의 활동 상황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비디오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과 1년여에 걸쳐 제작될 이 홍보비디오가 완성되면 기존종도들의 자부심 제고는 물론 내외에 본종을 알릴수 있는 일선 교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합창경연대회와 신자발표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종단의 뛰어난 찬불가를 소개할 CD 및 오디오 테이프의 제작도 기획중이라고 한다. 부산시 동래구 정각사(正覺寺)의 증축이 지난 연말 완공을 보았다. 작년초에 착공한 이후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연말에 완공되었는데 현공불사는 금년 3, 4월 중에 봉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현공된 본당은 연면적 6백여평에 지

의 장중함을 드러내고 참여 교도의 신심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 차 회의가 지난 12월 18과 19일 이틀간에 걸쳐 본산 총리원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특히 거론된 것은 발원문의 보충과 법의 개선에 대한 문제로서 이는 앞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들은 취합하여 법장원에서 검토 정리한 다음 2월중에 있을 제3차 회의에서 다시 심의될 것이라고 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모임이 자주 개최되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고 교화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사법요연구회 활동 활발

본종 불사법요를 심의하고 연구하는 모임인 불사법요연구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12월 18과 19일 이틀간에 걸쳐 본산 총리원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특히 거론된 것은 발원문의 보충과 법의 개선에 대한 문제로서 이는 앞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들은 취합하여 법장원에서 검토 정리한 다음 2월중에 있을 제3차 회의에서 다시 심의될 것이라고 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모임이 자주 개최되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고 교화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지만평



현목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회	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손	금	광
수석부회장	장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홍	인	곡	이	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이	법	덕
부회	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	운	덕	이	사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	혜	우
부회	장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원장	김	락	혜	이	사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이	대	화
부회	장	대한불교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김	월	서	이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윤	지	명
부회	장	중앙승가대학 총장	방	지	하	이	사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신	혜	안
부회	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	흥	파	이	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윤	일	오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대	호	이	사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총무원장	김	무	찰
이	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정	혜	일	이	사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이	청	봉
이	사	대한불교 원용종 총무원장	배	일	공	이	사	천화 불교 교정	이	회	수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정	법	운	이	사	대한불교 미타종 중정	권	홍	곡
이	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	무	진	이	사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김	해	광
이	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김	사	한국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광	태
이	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김	혜	정	김	사	대한불교 미륵종 중정	김	우	당

신년특집 인터뷰

불교소비자보호위 “신년설계”

지난해 중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불교계 최초로 소비자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효강님에게 올 상반기 활동 계획을 들어본다.

-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때에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을 우리 총지중보에 맡기게 되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텐데요?

그렇습니다. 중단협이 그간 사회적 역할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반성을 토대로 작년 7월 우리 중단 협회장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낸 이후 근 삼 개월 가량 각 재정경제원과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방문하였고 전문교수 등에게 자문을 구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그간의 경험이나 전문적인 연구 등이 없었던 부분하기에 본격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중단 내에도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전담하기에는 무리한 점도 있지만 이제 우리 중단의 규모로 볼 때 사회적 역할과 포교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올해 주요 사업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난 해에는 시범적으로 정책공정회와 소비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변화에 대한 공청회, 불교 소비자대학을 통한 소비자권리와 피해구제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본 위원회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서 조직과 교육, 소비자 의식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조직 사업은 부산과 광주 대구 등 5대도시에 지부를 결성하고 수도권에 지회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중단협과 해당 도시의 사업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의 주요 사찰이나 신협단체에 지부를 결성하고 지회 역시 이런 경로를 밟고자 합니다.

지부와 지회를 결성하면서 동시에 순회교육프로그램도 실행할 것입니다. 소비자 권리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아울러 건전한 소비문화는 무엇인가, 또 해당 도시의 소비자정책과 책임자를 초빙하여 해당 도시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공청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소비자대학도 계속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소비자 의식 조사와 지역 불기조사 등 실제적인 모니터링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도와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조직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사업을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에는 인적 물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대안은?

사실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



안효강 위원장(중지총법정위원장)

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비자보호운동의 중심이 되어 보살행을 펼쳐려는 사원이 확실하다면 대단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역시 활동의 성과에 따라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 현재 다른 소비자단체가 얼마나

원에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분쟁 조정, 전문적인 검사와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단체 가운데 많이 알려진 조직으로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으며 그 회원단체로는 소비자연맹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참으로 열심히 활동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들에게 재정 보조 등 여러 면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운동을 지향하는 녹색소비자연대라는 단체도 있고 그의 소비자문화연구소 등 연구단체도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들에 비할 수 없이 일선하고 경험과 이론적 축적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는 배우고 우리 나름대로 개발하여 소비자시대를 열어가는 주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회 등 요건을 갖춘 단체는 재정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런 단체에 보조금 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하반기에는 재정원에 정식 등록할 예정입니다. 단 반드시 정부의 보조에 연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시행령에 규정된 정부보조가 현재 그간의 관행으로 굳어져 소비자단체협의회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시속으로 달아 두겠습니다.

- 등록 이후에도 변함없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입니까?

등 록 이후에도 변함없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입니까? - 보다 많은 불자들이나 일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획으로는? 작년에 정책공정회도 그렇고 불교 소비자대학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대단히 좋았으나 대중의 참여는 지극히 저조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충분히 불교

위원회의 조직결성과 교육에 중점 교계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해

러나 중단협 소속 중단이 적극 후원하고 또 우리 중단이 주체적으로 실행시켜간다면 전혀 무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기 소비자대학 수료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과

되며 그 단체들의 활동은 어떤지? 정부 측에서는 재정경제원 소비자정책과에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수립과 검토 등을 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보호

- 정식 소비자단체로 등록도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등록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비자단체로서 3개도시 이상의

신자들에게 대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막연히 내용이 좋으면 사람도 많이 오겠다는 안일한 자세였습니다. 불교계에도 많은 언론기관이 있고 단체와 매체도 적지 않은데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각종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도를 높일 것입니다. 대중에게 회향하기 위해 사전 홍보와 사후 성과를 각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 활동의 성숙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우리 중도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끝으로 해주십시오.

앞서 얘기한 내용에 모두 담겨있지만 거듭 당부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운동에 우리 모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소비자단체가 있다하여도 우리 불교신자들이 합심하여 소비자시대를 열어가는 주체가 된다면 비록 늦게 시작한 불교소비자운동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리라 확신합니다. 본 위원회는 좋은 활동 내용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중은 적극 동참으로 화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불합시다.

(정리: 편집부)



제1회 소비자 정책 공청회 광경

서동석 칼럼



한다.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하여 누구나 다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 삼법인과 사성제 등 세계의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여법하게 실천하여 우리가 사는 중생계를 참으로 평등과 자유가 확고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게끔 노력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이며 이때 부처가 될 자격은 서서히 또 어느 때는 단박 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주어진 일생 동안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길을 닦아가도록 실천하여야 성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나혼자 바퀴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와 남 그리고 사회의 나쁜 요소들이 제거되도록 노력하여야 성불의 길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기약이 없다. 또한 누가 그것을 대행해 줄 수도 없다. 오직 자신의 철저한 자각과 하고자 하는 의지

최근 재미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망했을 경우 그 회사의 재산처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96년 12월5일 내린 대법원 판결은 이 '우선적'이라는 단서에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간단히 사건의 내용을 간추리면, 제일세라의 직원이었던 권기중 씨등 64명은 지난 93년 회사가 부도 난 뒤 경매에 부쳐졌는데 1년 후인 경매종료일까지 임금을 해당 하는 채권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권리는 지키는 사람에게만

고 뒤늦게 돈을 받지 못하자 회사와 실적으로써만이 발휘되는 것이 다. 불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무임승차'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더러 불자들 가운데 사회적 문제에 중단이나 불교인들이 나서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사회문제는 그 당시자들이 알아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성불의 조건이랄 수 있는 실천성에 대한 의면에서 비롯되는 사고다. 중생이 두루 평등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사회민주화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회의 민주화는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애써 회피하는 그 구실로 '종교적인 의사가 없다'고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장이다. '권리 위에 낯잡 자는 사 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격언을 적용한 셈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지라도 그 권리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권리의 자격은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잘 음미해 볼 일이다. 이것이 최근 법조계의 추세라고

불교텔레비전 우리가 살립니다.

전국의 총지중 가족 여러분!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불교 텔레비전이 그 동안의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 속에 이제 서서히 그 터전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불교 텔레비전은 종교방송 3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언론사 선정 유망PP사로 주목 받으며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제4차 주식 공모는 초기에 경영목표로 제시했던 250억 자본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 더욱 안정된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이번 주식 공모에 모두가 동참합시다.

이제 불교텔레비전의 전 이사진도 개국 3주년을 맞이하는 98년도의 흑자경영 달성을 위하여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직원 모두가 경쟁력 강화 운동등 목표달성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방송국의 허가 지연과 부가서비스의 개발 등 관련 법규의 제한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불교 텔레비전은 이제 그 힘찬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법홍포와 고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영상 매체 불교텔레비전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총지중은 불교텔레비전의 창립 발기인일 뿐만 아니라 이사 중단으로서 불교 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차 주식 공모에 모두가 동참하여 불교텔레비전은 우리가 살립니다.

불교총지중 총리원장 법공합장
불교텔레비전 이사 법공합장

자비정신을 실천합시다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사업추진을 위한 후원회 가입 동참 권선문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우이웃돕기 보육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 보상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제현실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부디 이 인연 공덕으로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이 가내에 충만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예금주 : (재)불교총지중
•계좌번호 : 한일은행 역삼동지점
122-022117-13-202(사회복지위원회)
122-022051-13-501(소비자보호위원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귀하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3452(7485~6)

지상설법

업과 업보



화엄사 주교 법지현

죄나 복을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온다. 하지만 죄나 복을 짓고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거나 잊어버렸다면 그 과보를 누가 주는 것일까?

이것은 오직 우주 대자연의 법칙 속에 업력의 힘이 남아 있어서 죄나 복을 지은 사람에게 재앙을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죄나 복을 지은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에게 지으면 그 상대에게서 받지만 상대가 모르게 지은 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갈기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어서 남 모르게 휴지통에 넣는 마음은 비록 복을 줄 개인적인 상대는 없지만 그 업이 쌓이고 쌓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연히 돌아오는 천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아무도 모르거나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법을 어기거나 질서를 어겨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설혹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반드시 벌을 받아 재앙이 돌아오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재수나 운수나 우연이니 하지만 자기가 지은 업이 때가 되어 돌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업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도 빠짐 없이 돌아 오는데 비유하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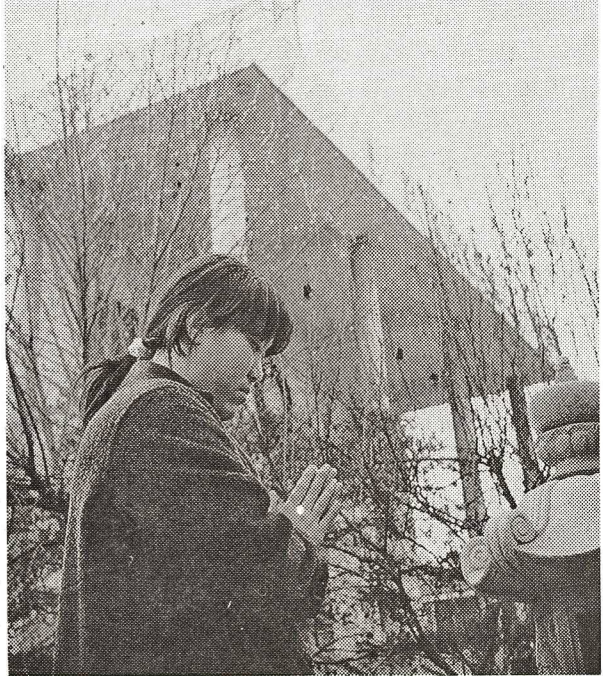
- ①일의 반응이다. 성의를 다하여 일을 하면 성의만큼 결과가 공정하게 나타난다.
- ②이치의 반응이다.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면 아침에 상쾌한 기분이 된다.
- ③물질의 반응이다. 공을 베풀어 치면 주어진 힘만큼 역 비례로 돌아온다.
- ④마음의 반응이다. 상대에게 불쾌한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도 나에게 불쾌하게 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도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이처럼 지어서 돌아오는 것은 틀림없이 이 네가지 반응으로 돌아온다. 자기가 지은 것은 담배를 아니라 영겁을 두고 몸을 바꾸어 가면서도 받게 된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것을 금생에 받을 수도 있고 금생에 지은

것을 내생에 받을 수도 있으며 영겁을 두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을 짓는 것은 본인에게 있지만 그 과보를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죄나 복을 줄 상대가 있으면 상대에게서 받고 상대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우연히 돌아오는 것처럼 업보를 받고 야 마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엄밀한 업의 결과인 것이다.

어느 지역에는 가뭄이 들고 또 어느 지역은 홍수로 피해를 당하고, 아파트가 무너진다거나 민원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여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무사하고 등등. 이런 것이 우연한 기운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선량하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희사하는 일을 볼 수 있



포기하는 것은 천지에서 시작된다. 정해(정해)는 새해의 시작이다.

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절에 열심히 다니더니..."하고들 말하지만 진리에서 주는 과보는 지공무사(至公無私)하여 하나도 틀림 없이 공평하고 사사로움 없이 지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어느 호텔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다. 죽은 사람 가운데 일본사람, 미국 사람, 외국사람도 많았다. 왜 일본이나 미국에서 하필 그 시기에 한국까지 와서 그 호텔에서 죽었는가?

그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그 시기에 밖에 심부름 갔다 화를 면한 사람도 있다. 죽을 업보가 돌아오면 업력에 끌려 그 곳에(죽을 곳에)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업보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는 자기가 짓고 받지만 시간을 격하여 나타내므로 우연히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짓고도 잊어버렸거나 자

기도 모르는 가운데 지은 것을 받게 되는 결과이다.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반드시 받는다는 이치를 모르고 보면 우연히 돌아오는 것 같을 뿐이다.

시간적으로 오늘 지었지만 그 과보는 오늘 받을 수도 있고 몇 년 후, 또는 내생에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작은 악업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큰 벌이 돌아오고 작은 선업이라도 쌓이면 시절인연을 따라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경에 보면, 불불면정업(佛不面正業-부처도 정업을 면하지 못한다)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불과를 이룬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지은 업은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불공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복 받을 일을 지으면서 불공을 해야 복

화엄사상과 밀교사상의 관계 (2)

화엄의 세계를 밀교에서 더욱 발전시켜

법장원논단

정리: 대 玄

III. 密教의 비로자나불

화엄경의 비로자나불과 『大日經』이나 『金剛頂經』의 說主人 大日如來가 다같이 '비로자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밀교의 중심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 대승사상이나 『화엄경』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밀교의 비로자나불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1. 大日經에서의 비로자나불

『대일경』, 즉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도 또한 이 『여래출현』의 의의를 주제로 한다. 그 무대는 『金剛法界宮』으로서 모인 대승은 持金剛者들을 제외하면 화엄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이 비로자나불은 持金剛者를 필두로하여 秘密主金剛手(Guhyadhipati-Vajrapani)를 향하여 법을 설한다.

그 기본내용은 여래의 身口意는 우리들 중생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은 一切智(sarvajñana)를 본질로하며, 그 三密을 가지고 神變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돕는다. 그 본질은 『大覺를 뿌리로부터 보리심을因으로 하고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고 한다.

방편이란 자비에 의한 중생제도의 행이기 때문에 "성불에서 설법으로"라는 불타의 자취를 더듬어 佛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점에서 대승경전 일반과 다름이 없다. 또한 보리심도 『화엄경』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제도의 사원을 포함하는 것인데 동시에 果인 보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도 화엄경의 유명한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다」(初發心時便成正覺)는 표현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나 佛의 마음이 그대로 중생에 있다고, 그래서 중생 「自心」을 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佳妙品」은 「心的 다양한 모습」이라는 의미인데 그 自心의 모습을 이

른바 160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간적인 모습과 출세간적인 모습으로 점차 상승하여 최후에 眞實秘密의 문에 의하여 하공과 같이 無邊·無染·無相하여 본래 적정한 것으로 현현한다. 이것이 보리심이며, 또한 「대승의 근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구경의 청정보리심을 알기까지는 무량 백천만겁의 수행이 요구되는데 이것 또한 대승과 다름이 없다. 다른 점은 구경의 법문으로 『眞實秘密의 담는 법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설법하는 비로

체여래가 되어 염부체에 모습을 나타내어 보리자에 있어 一切義成就善薩(sarvarthasiddhi)의 앞에 나타난다.

일체의 성취란 보살시절의 석가의 이름이다. 일체여래는 거기에 難行대신 여래의 진실을 이는 방법으로 五相成身觀을 살하여 「금강을 본성으로 하는자」(金剛界 vajradhatu)라는 灌頂名을 받고 그 체질이 일체여래와 같음을 알아 여래가 된다. 이래서 성불한 석가모니 여래는 수미산정에 정좌하여 일체 여래의 대표가

인 법계의 나타내 보임이며,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여래출현」의 의의이다. 그것은 법계를 체로 한 一切智智 그 자체로서의 대비로자나가 성도를 통해서 하나의 점에 응축된 모습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 『금강정경』중 금강계 형성과정에서 서술하면서 普賢心이나 普賢行 등의 이름이 여래들의 행이나 願을 성격짓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또 金剛薩는 보현대보살의 모습을 택하여 나타내는데 등 보현의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화엄과의 관련이 아니라 보현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의를 생각하게 하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현 보살이 여래의 因位の 行願을 상징하며, 밀교적으로는 금강살타와, 구체적으로는 金剛手도, 그리고 일체성취보살도, 모두 보현을 체로 한다. 말하자면 우리를 모두가 보리심을 발하여 진언유가를 수행하면 그것이 보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IV. 結語

화엄경은 佛을 說하는 경전이므로 本經에서의 비로자나불은 상징적 의미의 經主이기는 하나 說主는 아니다.

그러나 밀교의 두 중심경전인 대일경이나 금강정경의 비로자나불은 經主이면서 說主이다. 그리고 밀교의 세계관은 거의 그대로 화엄경 입법 계층의 세계관에서 따오고 있으나, 그것을 이어받아 보다 간소화하고 명확화하여 그 실천방도를 찾기 쉽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밀교는 화엄경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대폭 정리하고, 그 세계의 중심에 자리잡은 비로자나불과 우리 중생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장엄한 세계를 극히 명료한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화엄경의 구경적인 목표도 일반 현교와 마찬가지로 正覺에 있다면 밀교는 보리심을 因으로 하고 방편을 구경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화엄경의 세계가 중생이라는 시점을 긍정하는데 비해 밀교적 세계는 중생이라는 시점이 없는 것에 구조상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화엄경과 밀교의 사상은 교주인 비로자나불을 보는 시각에서나 세계관 등에서 같은 점도 많이 있지만, 대조적이면서 양립불가능한 점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중심불교에서는 법장원인 비로자나불을 이렇게 나타냈다.

나나 佛은 법계를 체로하는 점에서 법신이지만 「보살의 자태로서」 사자좌에 앉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화현이 된다.

이는 화엄경에 있어서 보현보살의 설법이 화현에 의한 교화의 하나라는 의도와 상통한다. 그러므로 법신은 특정한 모습을 통해서만 설법하게 된다. 동시에 화현에는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서 하나(佛)에 체현되는 일체(=법계)를 강조하는 점에서 화엄경과 공통되는 점이 보인다.

2. 金剛頂經에서의 비로자나불

『대일경』에 대하여 『금강정경』(初會)에서 말하는 세계는 그 일체를 체현하는 특정한 한 사람인 석존의 생각을 다시 강조한다. 이 경의 여래는 처음에 色究竟天에 주하다가 일

되고 둘레에 각기 일체 여래를 대표하는 4불을 두어 금강계의 5불이 된다. 이어서 37존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금강계의 만다라가 완성된다.

여기에서는 근원적인 법신을 「大毘盧遮那」라 부르고 있다. 그 법신이 일체의성취보살의 성도를 계기로하여 5불 37존의 금강계 만다라로서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 성각의 방법은 五相成身觀이라는 진언에 의하여 바로 여래와 합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래의 출현」에 대한 밀교적인 새로운 해석이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일체의성취보살의 성도는 일회적이며 개별적인 것이나 동시에 그것은 또한 밀교의 행자(修行者)에 있어서 보편적 체험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금강계란 각자의 「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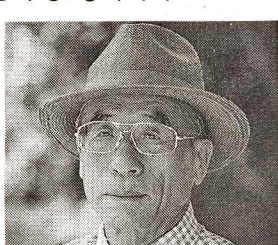
밀교의 세계

다문화·지구촌시대를 맞아 새롭게 탐구하는 붓다의 비밀스러운 가르침, 밀교! 신비스러운 밀교의 세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밀교 개론서!

Tantric Buddhism

불교사상 극치에 이른 가르침이자, 인류 지혜의 열매로 일컬어지는 밀교에 대한 새로운 탐구! 시대와 장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를 수용, 승화시켜 나간 대승불교의 전 역사를 통해 본 밀교란 무엇인가! 새롭게 정리한 밀교의 성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요묘한 진리의 세계를 통해 멋진 인생 철학을 얻는다!

정대혁 지음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태고종단 동양불교대학 학장으로 있으며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범이학》(철학사) 《붓다의 호흡과 명상》의 다수가 있다.



고려원 (733)7451-5 / (730)7741-3

박동환 지음
동양의 논리는 어디에 있는가
서양정신과 동양정신의 사유체계에 대한 논리적 해석!
*신국판/336면/값 6,500원

김용운 지음
좁은 세상에서 넓은 세계로
수학과 불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유의 개척!
*신국판/272면(하부 포함)/값 6,000원

동봉스님이 풀어 쓴 불교설화①
부처를 버리고 부처를 찾는다
설화 속에 나타난 중생들에게 열린 깨달음의 경지!
*신국판/344면/값 5,500원

동봉스님이 풀어 쓴 불교설화②
마음 그대로가 부처인 것을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얻는 세상을 보는 지혜!
*신국판/328면/값 5,500원

김상현 지음
역사로 읽는 원효
새롭게 만나는 독창적이고 실천적 사상가로서의 원효!
*신국판/352면/값 6,800원

정승님 지음
해는 서에서 東으로 온다
변모해 가는 오늘의 여성들에게 전하는 한국의 여인상!
*신국판/222면/값 5,500원

밀교개론

중기밀교에서 삼밀융합의 修法 정비

(초기밀교와 중기밀교의 차이점) 대일경 등 초기밀교경전은 초기의 밀교경전과 대비해보면 몇 개의 특징이 있다.

첫째 초기의 밀교경전은 불설(佛說)이라 하여 역사적 인물인 석존이 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일경, 금강경에는 교주(教主)가 실재성이 없는 교리적인 실재를 지닌 대일여래(大日如來)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둘째는 여러 가지의 종교의식 또는 주법(呪法)을 행하는 것은 초기의 밀교경전에는 제재난(除災難) 또는 병의 치유를 위한 현세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일경 또는 금강경에는 의례를 행한다든지 수법(修法)하는 목적은 현세이익 뿐만 아니라 성불을 위한 것이된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종교적 자각, 자신의 성불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순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기밀교 경전에 이르러서는 만다라가 성립하게 된다. 신비적이며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던 만다라가 정리되어 대일경을 중심으로 하여 태장계만다라가 성립되었고 금강경은 중심으로 하여 금강계만다라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형태로서 만다라가 성립된 것도 밀교의 특징 중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만다라의 재료는 아주 옛부터 이미 있었지만 이와 같이 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었던 것이다.

넷째는 진언(眞言)·주(呪)·다라니



티벳밀교에서의 관세음보살

또는 결인(結印)·인계(印契)·수지(手指)로서 편성하여 진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손짓들은 대체로 5세기경에 출현하였다고 한다. - 등 산발적으로 설하여 졌던 것이 결인과 다라니와 정신집중, 이 세가지가 한 몸이 되어 신·구·의(身·口·意) 삼밀(三密), 즉 몸·입·뜻 이 세 가를 유기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완성되었다. 이때까지는 주문으로 다라니를 염송하는 것 하나만을 행한다든지 혹은 결인 하나만 하는 것으로, 즉 따로따로 행함으로써 어떻게 정신집중이 될 수 있었겠는가! 정신집중이 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언으로 염송하며 인계를 결하고 정신집중함으로써 성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수법(修法) 즉 삼밀융합(三密融合)의 수법의 체계가 중기 밀교경전에서 비로소 설계되게 되었다. 다섯째는 중기 밀교경전에도 대승 불교의 이상(理想) 사상(思想)적인 것들이 종교의례 속에 짜 넣어져 밀교의 의례에 불교적 의미와 사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뜻에서 볼 때 대일경 금강경은 매우 특징이 있는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고 대일경의 성립 장소가 어느 곳이나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중인도설(中印度說)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지금의 파드나 혹은 나란다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강경은 남인도에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후기의 인도 밀교)

후기밀교는 8세기 이후에 금강경이 주체가 되어서 힌두교적 색채를 가미하여 전개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밀교는 실크로드 또는 불교남진의 길을 통하여 중국에 전승되었고 중국에서 한국 일본 등에 전래되었지만 그 밀교는 거의가 인도 7세기의 중기밀교였다. 인도의 후기밀교가 송대, 즉 11세기경에 중국에 들어온 기록은 있지만 별로 확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이 난 모양이다.

그와 반대로 티벳불교는 인도의 후기밀교가 중심이 되어 번창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7세기경부터 겨우 문화의 싹이 트기 시작한 티벳은 이때부터 불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티벳이 불교를 수용한 것은 중국 또는 실크로드 인접국들에 비하여 훨씬 뒤였다. 그때가 인도에서는 밀교의 최전성기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티벳불교에는 처음부터 밀교적인 것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기원전 후부터 실크로드를 통하여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대승불교적인 것부터 전래되며 밀교는 그 뒤에 전래되었다.

티벳은 국가가 형성된 것도 늦었으며 후기밀교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티벳밀교의 불상을 보면 분노존 또는 남녀의 합체 불상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이 후기 인도 밀교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다고 한다. 수명관정(受命灌頂)이라 다라니의 거기에 따른 계를 내려주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관정은 밀교 특유의 것으로 현교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이다.

특히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계단을 삼매아계단(三昧耶戒壇)이라고 하는데 삼매아란 평등(平等)·본사(本誓)·제장(除障)·경각(驚覺)의 뜻이 있으며 중생은 그 본질이 부처와 다를 것이 없으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성불로 이끌고 중생은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불타의 깨우침에 의하여 성불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또한 이 삼매아계단에서 계를 받고 밀교의 가르침을 받아 의심치 않으며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불퇴전(不退轉)의 의지로 물러서지 않으며 성불의 그날까지 정진할 것을 맹세한다.

경전을 통해본 경제활동

본고는 지난 해 11월 20일 제17기 불교소비자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1. 생산
원시경전에는 생산주체와 관련된 산업으로 농업과 목축업을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와 공역사업에 대한 긍정적 공적이 경전의 여러 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 관련된 교설은 분배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 까닭은 아마 인도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기인하고 있을 것이다.

석존 당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노동하는 협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 못 되었고 반대로 분배의 공평을 기하는 적정분배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과 관련된 교설이 분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하여 불타가 생산활동 자체를 낮게 평가했다고 보아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분배와 관련된 보시의 덕목이 강조되고 있



박 경 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나,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보완 관계이다. 세간은 공덕전(功德田)인 출세간을 통해서 시여의 덕을 실천함으로써 종교적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출세간은 세간의 도움으로 교단을 유지하고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2. 소비
소비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경제행위는 결국 소

람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애착을 끊어선다(768).

농도·집터·황금·마소(馬牛)·노비·고용인·부녀자·친척 그 밖의 여러 가지를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769). 온갖 번뇌가 그를 이기고 위험과 재난이 그를 짓밟는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그를 따르다. 마치 파손된 배에 물이 새어 들듯이(770).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바른 생각을 지키고 모든 욕망을 회피해야 한다.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듯이, 그와 같은 욕망을 버리고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한 사람이 되라(771)."

불타는 욕심을 적게하고 만족할 줄 알라고 가르친다(少欲知足). 이 소욕지족의 가르침을 소비와 관련된 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최소한의 소비로써 인간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소욕으로 만족할 줄 알 때 인간관계는 긴장과 갈등이 제거되고 우호적

재산축적은 중생구제가 목적
이기적 축재는 자타의 파멸로

는데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상인이 오전에 열심히 업무에 힘쓰고 낮에도 열심히 업무에 힘쓰며 오후에도 열심히 일한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러한 삼업을 성취하는 상인은 능히 아직 일지 못한 재산을 얻고 또 이미 얻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남전대장경 17, p.188)

불타의 교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근면과 검소로써 직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근면과 검소는 부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두 축이다.

사실상 이들 덕목은 재가신자들에게는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상속하는데 따른 윤리적 틀로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축적은 자본주의 목표인 이윤의 무한 추구라는 올바른 쓰임을 통해서 생전(生天)이라는 종교적 기제(機軸)와 연 결되어짐으로써 생산활동과 부의 증식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설은 무소유의 해탈을 주장하는 불타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일견 상충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답은 교단구조의 이원적인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세간과 출세간은 대립과 모순의 구조가 아

비와 관련되어지는 것이다. 잠야함이 설한 재가자의 재산운영에 관한 사분법은 소비의 측면에서 보면 모두 재의 합리적 소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즉 사분법 중 1/4에 해당하는 생계비는 개인적 소비이고 생업을 경영하는데 사용하는 2/4는 생산적 소비이며 궁핍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나머지 1/4는 장래에 대한 소비라 할 수 있다. 사분법은 저축과 재생산의 투자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비에 있어서 남비의 요소를 줄이고 검소와 절약의 생활로 인도되도록 구성된, 건전한 윤리를 기초로 한 합리적 소비패턴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소비생활이란 재화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화는 한 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여(施與)라는 올바른 쓰임을 통해서 생전(生天)이라는 종교적 기제(機軸)와 연 결되어짐으로써 생산활동과 부의 증식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설은 무소유의 해탈을 주장하는 불타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일견 상충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답은 교단구조의 이원적인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세간과 출세간은 대립과 모순의 구조가 아

인 함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3. 0년의 교환
원시경전에서는, 재화의 소비는 종교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정당하고 균형에 맞게 사용되고 또 축적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소비에 있어서 검소와 절약은 욕망을 절제하는 불타의 근본교설이 경제활동이라는 구체적 생활의 윤리로서 표현된 것이다.

검소와 절약에 대한 아난의 태도는 매우 감동적이다. 아난은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 입고 있던 낡은 옷으로 이불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떨어진 이불 덮개로는 베갯잇을 만들었습니다. 현 베갯잇으로는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떨어진 방석은 발수건으로 쓰였습니다. 낡은 발수건으로는 걸레를 만들었습니다. 낡은 걸레는 가늘게 썰어 진흙과 섞어서 벽을 바르는데 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석존은 일반인들에게 재산의 축적을 권장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개개인의 이기적 욕망 이라든지 이윤의 무한추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재산의 축적은 사회적 복리 증진을 그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

불교상식 - 관정(灌頂)

아사리가 법문을 제자에게 인가할 때
밀교에서는 관정의식을 특히 중시

관정(灌頂)이란 계(戒)를 받고 불문(佛門)에 들어갈 때 물이나 향수를 정수리에 뿌린다는 뜻이다. 원래 인도에서 제왕의 즉위식이나 태자 책봉시 그 정수리에 사해(四海)의 바닷물을 뿌리던 의식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밀교에서는 법을 전해주는 아사리(阿闍梨)가 법문을 제자에게 인가할 때 이러한 의식을 행한다.

밀교의 관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나누면 결연관정(結緣灌頂)·학법관정(學法灌頂)·전법관정(傳法灌頂)의 세가지가 있다. 결연관정은 사람들에게 불연(佛緣)을 맺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할 때 이를 행한다. 전법관정은 부법관정(付法灌頂), 아사리관정(阿闍梨灌頂)이라고도 하는데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아사리위(位)를 얻고자하는 사람에 대해 대일여래의 의계명법(義軌明法)을 주는 것으로서 진언(眞言)의 가장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인데 총지중에서 정사(正師)·전수(傳授)의 임명시

이를 행한다.

학법관정은 수명관정(受命灌頂)·제자관정(弟子灌頂)·허가관정(許可灌頂)이라고도 하는데 지난 11월에 본지에서 행했던 관정이 바로 이 수명관정이다. 이것은 밀교에서 제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리는 관정으로 명(明)이란 곧 다라니, 혹은 총지를 의미하며 성불(成佛)에 이르고 악법을 물리치며 보살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다라니를 반드시 얻어 수지독송(受持 讀誦)해야

자료수집 / 李哲教(동대도서관 열람과장)
해 제 / 金光植(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

韓國近現代
佛敎資料全集

民族社版 新修大藏經 예약안내

大新大藏經

無比스님 懸吐科目

華嚴經

본서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1876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각종 불교잡지 26종과 新聞類, 文件, 圖書類, 解放 前後 관계자료 및 淨化 關係자료 등 귀중한 불교자료들을 모아 영인한 것이다.

본 자료 총서는 동국대 도서관의 李哲教 선생님이 수집·정리하였고, 근현대 불교사를 연구하고 있는 金光植 선생님이 각 자료에 대하여 일일이 해제를 썼다. 따라서 본서는 한국 근현대 불교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총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록 자료>
佛敎 / 新佛敎 / 朝鮮佛敎 / 佛敎時報 / 慶北佛敎 / 朝鮮佛敎叢報 / 朝鮮佛敎月報 / 佛敎振興會月報 / 海東佛報 / 朝鮮佛敎界 / 東洋佛報 / 一光 / 金剛杵 / 金剛山 / 鷲山寶林 / 롬비니 / 禪尼 / 惟心 / 佛日 / 平凡 / 弘法友 / 潮音 / 新生 / 佛敎 / 鹿苑 / 淨土宗韓國開教誌 / 朝鮮開教五十年誌 / 朝鮮國布敎日誌 / 海外開教條規 朝鮮佛敎革新會 綱規 / 朝鮮佛敎中央敎務院 評議員總會會議錄 / 朝鮮佛敎大會 記要 / 解放空閒期의 佛敎界 新聞 / 淨化 關係자료 等 수십 종이다.
총69권 신국판 양장 / 각권 500쪽 가량 / 값 1,980,000원 / 100질 한정판 / 별권 해제

佛敎의 중요 經典을 集大成한 <新修大藏經>을 재간행하기 위하여 예약을 받습니다. 2년 전 <民族社版> 新修大藏經이 품절된 후, 지금까지 再刊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종이, 인쇄, 제본 등에서 그 어느 출판사보다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깨끗하고 탄탄한 대장경을 만들 작정입니다. 많은 예약을 바랍니다.

- 1. 新修大藏經 第1卷~第55卷, 목록 1권, 총 56권
- 2. 예약가 : 1,350,000원(계약금 350,000원, 출간 후 가격 미정)
- 3. 출간일 : 1997년 6월 30일 1차 30권 · 11월 30일 2차 26권
- 4. 46배판 각권 평균 1,000페이지, 하드카바 양장
- 5. 영구보존용지(코트지) 사용
(예약이 순조로울 시에는 간행일자를 당길 계획입니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우체국 010041-0275878 윤재승
농협 053-02-109450 윤재승

(無比스님 : 현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난해 <한글 화엄경>(전12권)을 번역하였고, 또 현재 조계종 승가대학원의 원장인無比스님께서 오랜 精進 끝에 80권본 원문 華嚴經(懸吐科目)을 간행하여 각 강원에서 화엄경을 보는 데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 강원에서 방대한 화엄경을 볼 적에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토를 달아야만 했고 또 토도 제각기 달라서 불편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제목과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서(科目) 내용 파악도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집체재나 활자, 제본도 이상적으로 되어서 이 책을 본 분들은 누구나 1질씩 소장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전4권 46배판 / 값 130,000원 / 500부 한정판
(각권 570쪽, 2도 인쇄, 고급양장제본, 케이스 있음)

도서출판 民族社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영식천도로 환자에 새 삶을

교화영험담



총지화(만보사 주교)

기미년 오월 어느 석양에 대전 만보사에 머리를 산발하고 숨이 가빠 말씀도 잘 못하시는 63세의 안노인이 찾아 오셨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몸이 너무 아파서 오셨다는 것이다. 물결이 험악하다 싶을 정도로 병약한 모습에서 노인을 보고 "우선 내과병원으로 가보시지요. 보아하니 천식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약을 잡수시던지 입원을 하셔야 되겠습니

어났다. "진실어중심밀어 무위심내기 비심(眞實語中直密語 無爲心內起悲心)"이라는 경구가 떠오르며 마음이 모아졌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노인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박금자다." 하면서 큰 소리로 증얼거리는 것이었다. 너무 놀란 나는 내 가방에서 돈 천원을 꺼내 다른 작은 주머니로 희사하며 부처님께 그 영식이 좋은 곳으로 이교득락되기를 발원했다. 그러자 노인은 여전히 나에게 등을 돌린 채로 앞을 향해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스님은 나를 위해 노자를 주는데 너는 왜 안주느냐?"

그러시더니 당신 주머니에서 얼마 인지를 꺼내어 본존 앞에 놓는 것이었다. 그러자 자신의 입으로 또 "네가 이 돈을 낸다해도 너를 숨 못쉬게 아주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치 누가 대상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 계속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옆에 다가가서 노인에게 여쭙어 보았다.

"할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제서야 나를 돌아보며 털어놓는 할머니의 대답은 이러했다.

는 얘기였다. 사연을 듣고난 나는 이것이야말로 불공으로 풀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 생각하고 노인에게 힘이 드실테니 49일 동안을 집에서라도 불공을 하시라고 하면서 육자진언과 존재진언, 딸의 영식과 유언영식왕생성불을 기원하는 불공법을 가르쳐 드렸다. 다음날부터 그 노보살님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집에서 불공하지 않고 매일 절에 나와 나와 큰 소리로 염송을 하셨다. 그렇게 불공을 시작하신지 47일 되던 날 새벽 3시 경이었는데 노보살님이 절에 나오셨길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느냐고 물으니 간밤 꿈에 구렁이가 나타나서 "너 이년! 음마니반 메혹과 음자례주례준제 사비하란 하지마라. 계속하면 당장에 물어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위협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전수님께서 불공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 영식천도를 위해서 열심히 불공을 해드렸다. 그리고 나서 곧 건강이 회복되어 그 보살님은 지금까지 1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공을 하러 나오신다.

하루라도 쉬 것을 권해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불공을 게

죽은 딸의 영식이 병고 유발 49일 불공후 완쾌되어

다." 라고 말씀드리니 "아닙니다. 약도 쓰고 병원도 수 없이 갔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굶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중앙 인동시장에서 상자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오셨던 만보사 교도 한 분이 그렇게 낯익은 병이라면 만보사 전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불공을 한 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다.

옛날 6.25 시절에 너무 가난했을 때 남편과 금자라는 딸이 동시에 죽을 병으로 아팠는데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 속으로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지만 남편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금자는 집이 될 뿐이니 어서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 안가서 어린 딸 금자는 정말 죽어버렸고 그런 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을리하면 천식이 재발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노보살의 수행에서 전수의 작은 범보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새삼 느끼고 동참불공도 지극한 정성으로 발원한다.

"모든 불자들이여! 전세인연으로 만났으니 나의 서원으로 그 보살들 가정에 모든 일이 다 성취되고 영식들은 극락정토에 천도 되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심인행 박광자 전수님

스승님의 은혜로 세파를 헤쳐

삶이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지만 스승님과 긴 이별 앞에 슬픔과 안타까움만이 가슴을 저칩니다. 언제나 단아하시고 고우신 모습으로 따듯하고 다정하신 손길로 항상 챙겨주시는 친정어머니 같은 스승님.

스승님을 처음 뵈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 없던 신훈시절 낯선 타향에서 가진 것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저는 그저 처녀 때부터 맺은 밀교와의 인연으로 삶을 헤쳐나왔는데 스승님을 만나고서부터는 더욱 삶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을 친정어머니와 같이 의지하며 지내는 날들이 어찌 그리 되었나 싶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밀교의 깊은 가르침에 의존해 스승님을 친정어머니 같이 의지하고 살아 온 것이 어느새 15년이 된 것인지... 스승님은 항상 열심히 불공하고 현실 생활도 충실히 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스승님의 설법들이 저의 마음 속에 쌓이고 쌓여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스승님은 이제 저의 길을 떠나시고 저에게는 아직도 가야

하고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닥칠 때는 부처님 진리를 더욱 세우고 용맹진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항상 깔끔하시고 부지런 하시며 근간에는 아프신 다리와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보살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불공해 주시고 격정해 주시는 스승님.

저는 이렇게 덕놓고 훌륭하신 스승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조금도 보답을 못하였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열심히 정진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참된 불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스승님, 기로원에 가시더라도 가끔씩 실지사를 찾아주시고 스승님 말씀대로 밀교의 깊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갈 저를 지켜봐주세요. 스승님의 건강과 안녕을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실지사 서남교 올림

일상에서



원승: 재무부장

지난 여름,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나 같이 물렁체질은 그리 굵은 편도 아닌데 여름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땀을 뚝뚝 흘리며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늘 걱정하시곤 했다.

하기사 지난 여름만큼이나 무더웠던 여름도 그리 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옛 생각이 난다.

어느 여름방학때 골짜기에 있는 눈에 김매기를 하시는 아버지에게 점심밥을 가져다 드린 적이 있다. 당시 점심밥이라야 아침에 밥할 때 점심까지 한꺼번에 많이 하여 둔 것을 그대로 어머니께서 주시다보니 찬밥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요즘은 눈에서 김매기를 하지도 않거니와 전기밥솥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다 자동으로 밥이되어 보온까지 겸하고 있으니 식은 밥 먹는 일이 드물다. 어머니께서 싸주신 밥을 함지에 담는데, 그 함지에는 된장과 고추장이 반드시 들어 있다.

재무부 원승 합장

총 씻으시고 감나무 밑 그늘로 오셔서 점심을 잡수시는데, 그야말로 밥 한 숟가락에 푹고된 편장 쪽 쪽어서: 잡수시며 "고추가 그리 맵지가 않구나" 하시면서 잡수시던 모습. 그뿐이니까. 옆집 아저씨는 아주머니가 가져다주는 밥을 잡수시고는 감나무 밑에 배를 하늘로 향하여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고시며 세상 모르게 쉬시던 모습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을 만큼 시골 정경은 싱그러웠다. 새삼 옛날의 시골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는 것은 번잡한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출퇴근을 하다보니 그때가 새삼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서울에 부임해 온지 어느새 반년이 지났다. 단 한 번도 지나쳐 보지도 못했던 동대문로를 조금 지나다 중간에서 우회하면 낙산 언덕에 탄탄히도 불심을 심어놓은 밀법도랑-밀인사.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길, 주위의 집, 사람들 모두가 서서히 정이 들어간다.

처음 이사를 때 떨리고 여유로운 없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은 따듯이 맞아 주시는 보살님과 서울의 스승님도 계신다. 넓직한 서원당에는 본존(本尊)인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왕진언인 음마니반메혹이 보살님들을 맞이 해 준다.

이런 훌륭한 도량에서 수행하니 누가 편지입문호시절(片時入門好時節)이라 했던가.

좋은 시간 보내려 하지마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재무행정이라는, 이래저래 힘에 썩은 임무가 주어졌으니 새해에는 무언가 달라져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되는데 하는 고민에 빠진다.

그러나 옛말에 하유경풍(夏有輕風)이던 동유설(冬有雪)이라.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올건데 너무 그리 조금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일 배우며 새해에는 꼼꼼히 내일을 다지며 신뢰받는 재무행정관이 되었으면 싶다.

기자수첩

얼마전 김천시 아포동에 있는 보리암 주지 해인이라는 스님이 간암과 기타 병으로 투병중이었는데 일찍하기 얼마전에 평소 교분이 있던 김도집사에게 간병을 부탁했고 간병한 지 20여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님이 유언으로 9000여명에 달하는 보리암을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구미노회라는데 헌납하겠다는 유언을 남긴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스님이 어쩌서 간병인 하나 없이 이교도에게 간병을 부탁해야 할 정도로 그 절에는 아무도 없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큰 사찰재산이 어떻게 개인 소유로만 되어 있었는지, 아무리 유언이라고 하지만 신도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사찰을

그렇게 신통 이교도에게 헌납했는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 스님의 임종을 전후한 예수교 장로회의 일련의 행위들이다.

첫째, 스님이 죽음을 앞두고 심신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러한 유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임종까지 머

다음으로 보리암의 한 신도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처참한 순간에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들이대고 유언을 받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라 믿을 수 없을 정도다. 혹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이래면 모르되 뜨거운 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장면이다. 그 이후에 보리암의 불상을 훼손하고 탕화를 치워버린 일들은 그들의 당당한 수순이며 여기서는 애گذ려도 안된다.

어쩌면 사소하다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의식구조와 행동양태

간병을 빙자한 재산권 탈취 죽음을 담보한 이교도의 잔악함

칠만에 유언의 공증을 받아 자기를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인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재산을 다 빼돌린 어느 파렴치한 자식의 행위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의 간병의도가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승과 인간의 피를 조금이라도 가진 자들이라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용서받지 못할 잔인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의 간병행위가 사찰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것을

를 엿볼 수 있다. 민족의 유산을 앞장서 파괴하고 민족 동질성을 훼손하는 무리들의 배후에는 저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혹 낯선 동네에 이사를 갔을 때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거든 그들의 저의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보라.



자비실천의 千手, 千眼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21세기 한마음통장 프로그램 개발!

통장이름을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찰·종단에서 통장이름을 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시면 불자께서도 사찰·종단에서 정한 통장과 동일한 이름의 통장으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세후이자의 20%를 사찰·종단에 기부!

불자께서 거래하시는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의 이자결산시마다 세후이자의 20%가 은행만의 부담으로 사찰·종단에 기부됩니다.

보너스금리 0.25%가 사찰·종단 재정을 쏙!

별도로 정한 예금·신탁과목에 대하여 은행에서 불자에게 지급하는 0.25% 보너스 금리가 불자께서 지정하신 사찰·종단의 계좌로 이자발생시마다 보시됩니다.

자비의 실천!

위와 같이 조성된 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포교활동」, 「사찰봉사」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마음통장프로그램」이란 은행은 세후이자의 소정률, 불자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보너스금리를 사찰·종단의 계좌로 기부(보시)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용 프로그램이다.

가입안내

가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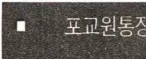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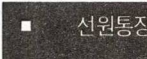
- ☆사찰·종단 또는 불자(관련 단체·회원 포함)
- ☆후원자(개인, 기업체 등 제한없음)

통장의 구성

기본계좌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연계계좌	정기예금(일반, 복리), 정기적금(일반)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개별신탁(확정), 꿈모아적립신탁(정기적립), 노후생활연금신탁

통장발급

- ☆사찰·종단의 단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사찰·종단에서 정한 통장과 동일한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특별 서비스

성지순례대출

성지순례대출이란 불자가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시 따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자격

- 이 통장에 가입한 불자로서 대출금액 이상의 연결적금(계약고)
- 1회이상 불입자
- ★대출한도: 최고 5백만원 이내
- ★대출종류: 보증대출

특별서비스

은행이 정한 일정기준 범위 내에서 은행과 사찰·종단은 별도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공지사항 회원통지서비스
- ★대여금고 무료이용 및 야간금고 설치
- ★통장의 디자인
- ★ID카드 및 공인직불카드 발급 서비스
- ★사찰·종단의 특성에 따른 기타특별서비스도 제공하여 드립니다.

★자동계좌이체서비스

보시, 후원금, 각종회비, 기금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소속 사찰·종단의 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통장명칭	불교총지중
단체번호	000223

☎ 위 번호를 다른 불자 및 후원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정축년 불교우화

“대가리 들어 봤자지”

옛날 인도에 불법을 잘 받드는 아 소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인도 29 개국을 최초로 통일한 대왕이었지요. 이 나라에 아사라는 아주 훌륭한 정승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정승이 다른 말은 다 잘 듣는데 한가지는 시켜도 잘 듣지를 않았습다. 그것은 스님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소카대왕은 스님만 보면 절을 하였고 어린동자승에게 까지도 절을 하였습니다. 절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의 절하고는 하는 방법이 판이하게 틀리는데 인도 절은 배를 깔고 팔을 양쪽으로 뻗고 발을 뻗어 큰다자로 엎드리는 큰절이었지요.

정승인 아사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대왕을 보위하고 다니지만 절하는 것이 한가지만은 귀찮아 하였습다. 그런데 아사보고 '오늘은 건국 기념일이니까 하루를 쉬자.' 그리고는 모든 신하들을 보고 멍길 사람이고 짐승이고 대가리 하나씩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죽은 것으로 그리고는 아사에게는 금방 죽은 사람대가리를 구해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하들은 금방 구해서 가지고 오는데 아사는 가장 늦게 죽은 거지의 대가리를 구해 가지고 해가 넘어 갈때쯤 가지고 왔습다.

왜 그리 늦었느냐고 묻자 세상에 사람대가리를 누가 팔니까 하며 겨우 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명령하기를 '그래, 그러면 모두 나가서 팔아 오나라.'고 하였습다. 그러자 모두 나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소대가리 사세요 하면 소대가리 사가고 개대가리 사세요 하면 개대가리 사가고 말대가리 사세요 하면 말대가리를 사가는데 사람대가리 사세요 하니까 한 사람도 안 사가고 오히려 미친놈 이라고 하더랍니다. 결국 팔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왕이 어찌되었느냐고 묻자 이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사람대가리를 가지고 오라 또 팔라고 명령하십니까? 한 사람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욕만 싹싹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소카대왕이 봐라 '아사야 그 사람이 리가 살아 있을 때는 참 귀중하던 죽기만 하면 그만 가치가 없단 말이야, 부모도 말하려고 안하고 자식도 어쩔든 아무도 말을 사람이 없어, 사람 머리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그런

데 그 머리를 땅에다 불이고 잘 하는 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하냐?' 그만 거기서 깜짝 놀란 아사는 크게 깨친 겁니다. 아! 우리 대왕이 진짜 대왕이구나.

그런데 대왕의 얘기가 멋집니다. '내가 괜히 스님들께 절 하는 줄 아느냐 어린승이건 늙은 스님이건 그 스님이라는 게 머리 깎는 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나도 몇번 깎으려다가 못 깎았어. 그러니 얼마나 장하나 그 정신이 훌륭해서 절을 하지 사람이 훌륭해서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랍니다.

그렇습다. 사람의 머리는 살았을 때 가치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광명이 나는 겁니다. 돌대가리 치켜 들 어놓자 별수 없어 비록 우직하지만 축년을 맞이해서 소를 한 번 범시다. 소란 높은 기쁠 때 웃을 때 머리를 들고 화가면 최대한 머리를 숙이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광생을 죽을 먹고 살 아도 목욕하 고편 일을 다해도 일로 사는 화내는 일이 없고 살때는 항상 먹은 것을 다시 한 번 새김질을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경망하지 않고 인욕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 죽어서도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갑니다. 고기는 고기대로 빠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보시고 똥은 똥대로 퇴비로 쓰니 무엇하나 버릴 것이 있 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자비보시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아삼을 부리는 우리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주고고며 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언행자들이여! 정축년 소해를 맞이 하여 소를 보고 배움시다. 고개 속임이 하심함을 배우고 육신을 회생함에 보시심을 배움시다.

“자비보시를 행하면 탐진치에 삼독이 소멸되네 대성앞에 고행하면 세간에서 편케살고 범신앞에 끊으면 중생도가 멀해지고 정진고개 난 행하면 소원함을 성취한다.”

돌대가리 들고보면 지은복은 없어지고 죄만남게 되느니라. 진언행자 하심하고 인욕행을 행할지라. 대가리 들어 봤자지!

실보사 주교 해암

진언행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부산경남교구장/삼일사 주교 義剛

人間의 역사는 마치 所有의 역사인양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또 한없이 채우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本來無一

物』이라는 말이 있다.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지지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소중함 일신마저도 온전히 가져갈수없는 이 몸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한없이 가지려고하고 또 채우려고만 할 것인가? 어느 빈 자리에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머물겠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성찰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크게 버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진언행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불자님 가정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 시기를 발원합니다.

참회와 보은으로 건강한 삶을



서울경기 교구장/관성사 주교 鏡觀

“남에게 받은 은혜는 큰것도 갚으려 하지 않으며, 원한은 작은것도 기 여히 갚으려 한다. 남의 잘못을 들으면 분명치 않은데도 의심하려 하지 않고, 착한 일은 분명한데도 이를 의심한다. 이것은 심히 각박(刻薄)한

것으로서 가장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체근답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참 많이 주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은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노고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내세우는데서 사회의 온갖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조그만 은혜에도 보답하고자 하는 정신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한결 아름다워질 것이며 이 사회는 더욱 향기로워질 것이다. 우리 종조님 법설집에 보면 『사람은 참회와 보은과 감사로서 병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 오탁한 진리를 체득해서 심신의 건강을 영원히 간직 합시다. 새해에도 불자 여러분의 가정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맑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기를



개천사 신도회 회장 범주 김홍련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습다. 지금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 만불은 지금까지 우피와 땀으로 이룩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

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의 투자에 소홀히 했으며, 기업은 설비 투자와 기술개발에 인색하였고, 국민들도 고도 경제 성장기 시절에 가졌던 소비 향락 풍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과소비 풍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도덕 기강이 해이해져 인륜성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종조님은 물질이 일어나는 때는 탐진치도 함께 일어나고 탐진치가 치성하면 성품이 곧 어두워져서 일체 병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병은 물질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조님은 이러한 병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밀교를 믿어 지혜를 밝히고 마음을 맑이 하는 것은 과소비 풍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도덕 기강이 해이해져 인륜성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축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 같이 마음을 바로하여 맑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 들도록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소처럼 묵묵히 인욕하는 마음으로



정각사 주교 정정심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축년은 12간지 중에서 소의 해인만큼 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할 바를 성실히 수행하는 반면 아집으로 일을 그르치는 일을 지양해야 겠습

니다. 주인에게 잘 수순하는 소가 특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의 주인공 발같이도 그와 같다고 봅시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수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귀영화와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뜻대로 되는 일이 적어서 몸과 마음이 항상 고달프고 괴롭습다. 탐심을 버리면 만족

한 마음이 일어나서 진심과 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탐심과 진심에 매달려서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허다 합니다. 부디 항상 자신을 자제 하셔서 마음의 보배를 잘 굴리고 욕행을 실천 수행해야 겠습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더 많은 악업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만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서 진리의 보배를 알게하면 그보다 더 큰 재산은 없을 것입니다. 저절로 효도하고 우애있고 나라에 충성하는 훌륭한 역군이 될 것입니다.

한마음 바로 일깨워



정각사 신정희 회장 서춘선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맘 때쯤이면 왠지 마음이 바빠진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일, 마음에 걸리는 일, 지나간 날은 돌아올 수 없고 새날을 위해서만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매일 행하면서도 참된 행함이 정말 어렵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처를 향하여 끊임없는 정진을 하여야 하며, 매일같이 새로

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일깨워야 한다.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을 두려워 하거나 피하지 말고 묵묵히 수용하는 것 즉,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놓이두고, 좋으면 좋대로 싫으면 싫은대로 놓이두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되면 고통을 뛰어 넘을 수 있다. 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심



대구경북교구장/개천사 주교 수성

밝아오는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하신 범신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총지종 진 언행자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소의 된 구석구석까지 변함없이 골고루

비추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서원 합니다. 물질문명이 가져다준 개인주의, 탐욕과 방탕의 소신인 “나”, 내주장 내 이익만을 위한 편의주의로 하여 봄에 씨뿌려 정성껏 가꾸어 가을에 거둬들이는 순리는 간데없고 거두어 들이기만을 생각하는 일, 잘못은 모두 다 너에게만 있다는 생각들을 바로잡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답게 사는 심성을 바로잡기 위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건전한 이타 정신을, 더불어 사는 화생정신을 가지도록 우리 불교인이 앞장서서 밝은 내일을 건설하는 일꾼이 됩시다.

항상 베푸는 마음을



총지사 신정희 회장 김성민(월광인)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웃은 훌훌 벗어버리고 새로운 웃으로 정갈하게 갈아입고, 부지런하고 끈질긴 인내력을 가진 소같은 각오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합시다. 어려운 경제

와 각박한 삶속에서 혼자만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어려운 사람을 걱정해주는 모범적인 총지종보살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날마다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봉사정신을 가집시다. 받고 싶으면 먼저 주라고 했습니다. 항상 베푸는 그 매력은 자석처럼 모든 이웃을 끌어 당길 것입니다. 흠으로 빛은 도자기가 다시 흠으로 돌아가듯 우리의 몸도 결국은 흠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 아까지 말고 항상 남을 위하는 보살도를 실천 합시다. 날마다 즐겁고 좋은 날 되소서.

삼보의 은혜에 감사 드리며 밝은 한해 되시기를



총지(總持)는 오직 묘한 약이요
하늘의 감로와 또한 같아서
미혹된 병을 능히 고치니
먹는자 항상 안락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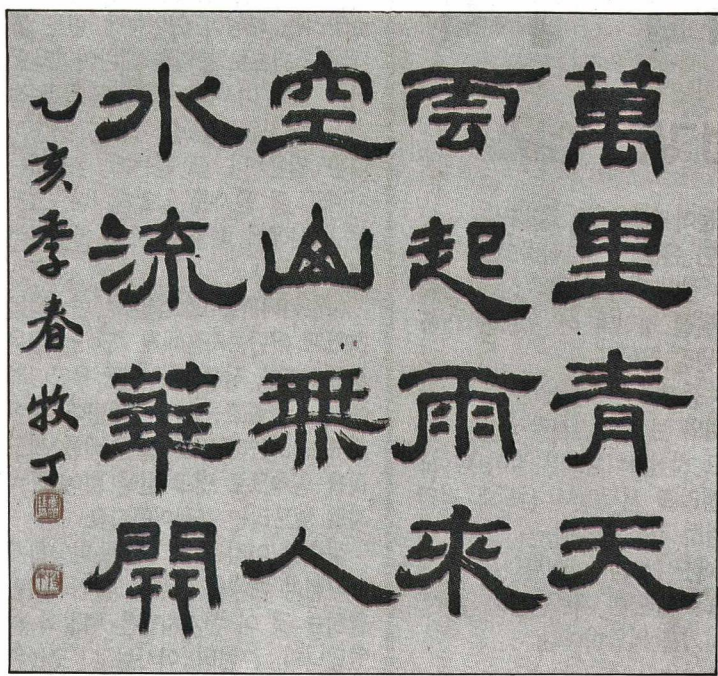
—반야경—

에인을 찾아서

날로 새롭기를 바라는 서예가

목정(牧丁)이시규

인사들은 항상 이곳을 찾는 사람들...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직 옛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통 한옥들이 우리네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계다가 거리에 진귀한 공예품이나 장식물을 파는 난장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혼잡 속에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한다.

찾은 곳도 인사동이며 그 중에서도 또 유독 (명신당)을 찾았다. 이 필방의 주인인 목정 이시규씨(42살)의 명성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천 이상적용은 조각을 하는분이었다. 부친의 영향을 받았는지 화교 시절 그림공부에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스페인의 소피아 왕비와 함께

목정은 전각에도 능하다. 서예와 전각은 서로 변증법적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된다. 또한 그의 깊은 심정으로 인해 스님들의 발길도 매일 끊이지 않는다. 조계종의 스님만이 아니다.

목정에게는 수산(水山)이라는 별명이 따로 있다. 12년전 해인사의 해암스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비록 유발(有髮)상좌이지만 하지만 큰스님을 지성으로 모신다.

집안에 찾아드는 공적 사적인 손님만이 아니다. 인사동의 잡상인, 난장꾼, 걸인 등에게도 내침없이 가게의 한 자리를 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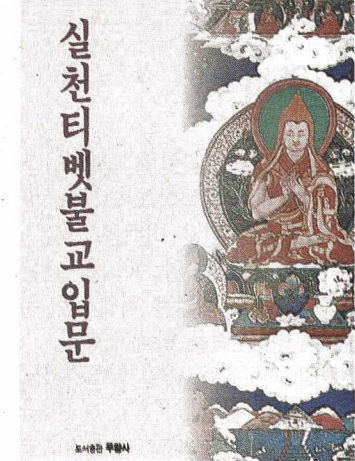
창교절 기념 찬불가 발표회

-개천사에서



창교절 25주년 기념 찬불가 발표회가 지난 12월 22일 대구 개천사 서원당에서 열렸다. 대구 지역의 수많은 교도와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개천사 합창단(회장 김계숙, 지휘 배해근)의 창교가 및 범선부처님, 우리 총지중 등의 찬불가 이외에도 바위성, 떠나가는배, 고향의 노래 등 가요, 민요, 가곡등이 합창과 독창등으로 꾸며졌고 전상봉 씨(다스름 국악원장)의 대금 산조 및 피아노 독주등 다양한 공연이 2시간에 걸쳐 흥겹게 이어졌다.

개천사 주교인 수성 대장사는 인사말을 통해 은누리에 범선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지극한 불심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자 음성공양에 정진해 온 합창단 보살님에게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가는데, 고향의 노래를 가요, 민요, 든 이들에게 자비와 지혜의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실천티벳불교입문본

티벳불교의 밀교적 수행

밀교로 대표되는 티벳불교의 실천적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실천 티벳불교 입문)이 도서출판 무량사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 책은 서는 근본불교의 수행체계인 지관(止觀)의 전통위에서 대승불교의 중관사상을 융합한 티벳불교의 실천체계를 소개하므로서 중구불교의 영향 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던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

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티벳의 최고 학승의 한사람이었던 쯩가빠 대사의 (보리도차제론)에 의거하여 티벳불교의 교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티벳불교의 입문수행법인 육가행법(六加行法)에 대하여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일상적으로 수행할 때 독송하기 적당한 경전을 소개하고

신년축시

소를 타고 부처의 나라로

김종섭

가장 먼저 새빛 열리는 누리에 그 광명 밝히려 끊임없는 자비와 지혜로 또 한 해를 열어주셨으니 우리 마음 속, 지난 밤의 번뇌 거뒀내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하리, 미명의 공간을 저 태양이 한 울 한 울 그려내듯 그렇게 밝음은 신비로이 오는 것. 혼자서만 맞으려 말고, 조금씩 맞으려 말고 그저 어린 목동이 소를 타고 부처의 나라를 찾아 떠나듯 가끔은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며 그렇게 간들 어찌리 그래 빛이 곧 어둠이요, 어둠이 곧 빛이라 언제 어느 곳이나 즉신성불의 대도는 활짝 열려 있을지니 올해는 소를 타고 부처의 나라로 우리 함께 광명의 세계로 가자. 가파른 비탈길, 굽이진 자갈길도 만나겠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오직 우리를 비추시는 분! 그늘진 곳 없이 두루 빛을 나눠주시는 대자대비의 본성을 깨친다면 그 길의 끝에는 불구정도가 있으려나. 미련한 놈, 느린 걸음이라 채찍지 말고 소를 타고 쉬엄쉬엄 부처의 나라로 비록 우이독정일망정 육자대명 진언한다면 마침내 그 소는 등에 가득 경전을 싣고 빛부신 동녘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김종섭 약력

- 경북 영일서 태어나 경주에 살고 있음
경주중, 대구고, 중앙대 및 영남대 대학원 졸업
포항중, 경주여고, 산내고 등을 거처

발보리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발보리심을 위한 구체적인 관상법을 소개하고 있다. 제5장은 티벳밀교에 대한 개관을 설명하고 있다.
역자 홍선스님, 신국관 306면, 값 7,000원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 청약에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간 : 96. 11. 1~97. 2. 20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등 참여요소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대금주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별TV 설치 문의처
서울지역: 강남케이블TV(강남구)1518-3000, 강동케이블TV(강동구)4747-115, 강서케이블TV(강서구)3663-1414, 구로케이블TV(구로구)830-8300, 관악케이블TV(관악구)877-5000, 노원케이블TV(노원구)1934-3366, 동대문합방(동대문구)215-0114, 동부케이블TV(중랑구)433-2121, 동서케이블TV(성동, 광진구)498-6000, 동락케이블TV(동작구)824-8080, 마포케이블TV(마포구)717-1125, 이레케이블TV(도봉, 강북구)999-5555, 북부케이블TV(성북구)1942-0001, 서서케이블TV(서대문구)365-0101, 서초케이블TV(서초구)525-8852, 용산케이블TV(용산구)318-2700, 우리종합유선방송(송파구)418-3000, 은평케이블TV(은평구)388-8000, 중앙케이블TV(종로, 중구)753-6781-3, 한강케이블TV(영등포구)634-3200, 한국통신케이블TV(양천구)645-2222, 부산지역: 금정케이블TV(금정구)515-6140, 남동케이블TV(남동구)620-5000, 발전케이블네트워크(부산진구)640-8585, 부산케이블TV(동래, 연제구)555-0300, 서부산케이블TV(서부산구)293-0300, 중부산성합방유선방송(중, 동, 영등포)412-0666, 해운대케이블TV(해운대구)761-8888, 남부종합유선방송(영유, 남구)1875-0307, 북인천케이블TV(북인천, 계양구)551-9300, 서인천케이블TV(서인천, 서구)582-3211-4, 서해동합방유선방송(중, 동구)761-8888, 광주지역: 광주케이블텔레비전(광, 북구)1512-4433, 광주케이블TV(북구)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대전, 동구)673-3322, 한밭케이블TV(중, 서, 유성구)222-8350-1, 기타지역: 수원합방유선방송(수원)257-4011-9, (주)강원케이블TV(춘천시, 춘천, 화천, 철원, 양구군)242-2131-2, 영주합방유선방송(영주시, 영원군)271-3000, 인천케이블TV(인천시, 천안시)551-9991-8, 진주케이블TV(진주시, 진주시, 250-6500, 서남방송(목포시, 진안, 무안군)76-7777, 경북케이블TV(포항시, 울릉, 울진군)251-7777, 경남케이블TV(창원시, 창원, 진해, 밀양, 함안, 함양군)167-6900-4, 제주케이블TV(제주시, 목재동)41-7777